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출범** 7일 오전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2018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최영태 시민권익위원회 공동위원장, 시민권익위원 등 참석자들이 권익위에 바라는 글을 적은 부채를 들고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김태규 기자

## 전기요금누진제한시적 완화 가구당 평균 '1~2만원' 혜택

산업부 7~8월 두 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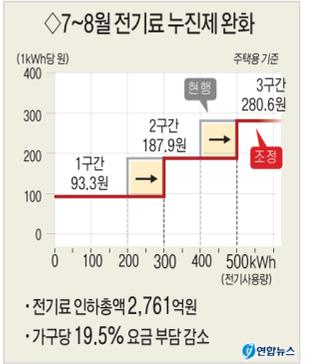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7~8월 두 달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가구당 평균 1~2만원 가량의 요금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의 30% 추가 확대, 출산가구 할인기간 기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특별 지원도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한국전력과 협의해 최근 지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 누진제는 7~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각각 100kWh씩 확대한다.

이로써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3단계는 501kWh 초과로 조정된다. 1단계 내 전기요금은 1kWh당 93.3원, 2단계는 187.9원, 3단계는 280.6원이 적용된다.



## 광주수영대회 자원·교통수단 '비상'

소요 예산 538억 부족...조직위, 정부 증액 요청  
광주~인천공항 KTX 내달부터 폐지 악영향 우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행사를 치를 예산과 교통수단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경기장시설 변경과 총사업비 확정과정에서 누락항목이 발생해 당초 예산보다 538억원이 부족한 데다 오는 9월부터 광주송정역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노선이 폐지됨에 따라 선수단 수송 대책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광주수영대회 예산이 538억원 가량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국비증액은 그리 쉽지 않은 전망이다. 시가 지난해 기재부·문체부와 맺은 협약 때문이다. 지난해 5월 29일 기재부장관과 문체부장관 권한대행, 광주시장은 광주수영대회 개최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서에는 '수영대회 사업비가 증가하더라도 추가적 국비지원없이 광주시가 모두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윤장현 시장은 세계수영대회 개최에 대한 정부보증은 필요하다는 FINA의 압박이 거세지자 불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협약 수정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적이 일고 있다.

## 아쉬운 소나기...전남 최고 22.5mm

30일째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은 광주와 전남지역에 오랜만에 비가 내렸다. 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전남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

현재 강수량은 영암 학산 23mm, 해남 산이 12mm, 화순 10mm, 완도 금일 6.5mm, 보성 벌교 6mm, 광주 풍암 5mm, 고흥 2.5mm 등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낮 최고기온은 광주 풍암 38.6도, 곡성 옥과 37.4도, 함평·나주 36.9, 영암 학산 33.1도 등을 기록했다.

비가 내린 지역은 낮 최고기온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워낙 짧은 시간 비가 내린 탓에 폭염을 누그러트리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기상청은 오는 8일까지 전남 동부지역으로 중심으로 5~50mm 소나기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연일 누적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이날까지 온열 질환자가 322명(사망 5명) 발생했다.

축산 분야에서는 406농가 70만3천여 마리의 닭·오리·돼지 등이 폐사해 27억3,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고수온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어류 폐사도 잇따라 5곳 양식장에서 45만6천여 마리가 폐사, 10억2,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은단감·인삼·수박·고추·포도 등 121.5ha 면적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종찬 기자

## 광주도시철도 공론화위원회 전문가 7~9명으로 꾸려진다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7~9명의 전문가들로 꾸려질 전망이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공론화 방식을 포함해 시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방식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최영태 공동위원장은 7일 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식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최대한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론화 위원으로 법조인·조사통계 전문가·갈등관리 업무 경험자·언론인 등 전문가 그룹 7~9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찬바람이 불기 전에 지하철 건설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이용섭 시장의 주문에 따라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최 공동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시민의견을 추출해 공론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오늘의 전남매일**

- 광주 전세 상승률 '전국최고' ▶2면
- 착한가게-남계간장게장 ▶3면
- '시민권익위' 본격 출범 ▶5면
- 수능 'D-99' 학습요령 ▶7면
- 청년 꿈이있다-서말희 대표 ▶8면
- 다도 청소년 실용음악캠프 ▶14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기원

광주·전남

# 한마음 걸기대회

**접수기간** : 2018년 8월 6일(월) ~ 9월 14일(금)

**참가자격** : 광주·전남 시·도민, 청소년, 학부모, 일반 참가자 등

**참가비** : 무료 (전원 기념품 증정)

**접수방법** - 홈페이지 : <http://walk.jndn.com>  
- 이메일 : [jndnnews@naver.com](mailto:jndnnews@naver.com)  
- 카카오톡 : jndnnews  
- 문의전화 : 062)720-1011,1099  
※ 선착순 접수자에 한해 경품추첨

**경품행사**  
TV, 냉장고, 비데 등  
다양한 상품 마련

**일시** : 2018년 10월 6일(토) 오전 9시

**장소** :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구간 : 광주천일원)

**주최** : M 전남매일    **주관** : JM스포츠

**후원** :